

FC바르셀로나 안수 파티가 팀의 상징과도 같은 등번호 10번의 주인공이 됐다. 리오넬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면서 10번이 공석이 됐기 때문이다. 바르셀로나의 10번은 히바우두, 호나우지뉴, 메시 등 레전드 선수들의 상징이었다.
사진출처 | FC바르셀로나 트위터

안수 파티 , 메시 빈자리 채운다

2002년생 FW, 바르샤 10번 주인공에

리오넬 메시(34)가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으로 이적하면서 비어있던 FC바르셀로나(스페인)의 등번호 10번은 2002년생 공격수 안수 파티에게 돌아갔다.

바르셀로나는 2일(한국시간) "파티가 등번호 10번을 물려받는다"며 "입단 이후 22번과 17번을 달았던 젊은 스트라이커는 그동안 메시, 호나우딩요, 히바우두 같은 전설들이 달아 유명한 바르셀로나의 10번 유니폼을 입는다"고 발표했다.

10번은 메시가 브라질 출신 호나우딩요로부터 넘겨받아 2008~2009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13시즌 동안 달고 뛴 바르셀로나의 상징과도 같은 번호다. 올해 6월 말로 바르셀로나와 계약이 끝난 메시가 PSG로 옮겨간 뒤 바르셀로나의 10번을 누가 달지에 관심이 쏠렸다.

서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에서 태어나 여섯 살 때 가족과 함께 스페인으로 이주한 뒤 축구를 시작한 파티는 바르셀로나는 물론이고 스페인축구의 미래로 일찌감치 기대를 모아온 선수다. 2019~2020시즌 프리메라리가 데뷔전을 치른 그는 바르셀로나에서 공식경기 43경기를 뛰면서 13골·5도움을 기록 중이다.

파티는 또 바르셀로나 구단 최연소 득점(16세 304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최연소 득점(17세 40일), 스페인국가대표 최연소 A매치 득점(17세 311일) 등을 기록하며 크게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왼쪽 무릎 반월판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인 그는 10번이 새겨진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 복귀를 앞두고 있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에이스 빠진 포항이 강호 전북을 이길 수 있는 이유

부진한 유망주도 살리는 '스틸러스 정신'



포항 김기동 감독은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이끌어내는 데 능하다. 1-0으로 승리한 1일 전북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고영준도 김 감독의 조언을 통해 자신감을 끌어올린 사례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강상우 대표팀 소집으로 빠졌지만
2001년생 고영준 골로 대어 잡아
"더 뒤처지면 안돼, 자신감 가져라"
투쟁심 키운 김기동 감독의 리더십

김기동 감독의 포항 스틸러스는 없는 살림에도 최고의 기량을 뽑아내는 팀이다. K리그 초호화 선수단을 자랑하는 전북 현대도 덜미를 잡혔다.

포항은 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 '하나원큐 K리그1 2021' 20라운드 순연경기에서 전반 16분 고영준의 선제골을 앞세워 1-0 승리를 거뒀다. 승점 39(10승9무8패)로 순위를 6위에서 3위로 끌어올렸다.

에이스 강상우가 국가대표팀 차출로 빠진 와중에 거둔 성과다. "이번 승리는 스틸러스의 역사가 될 것"이라며 기뻐한 김 감독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그의 말 한마디에 선수단은 강한 압박으로 전북을 몰아세웠고, 원정에서 값진 승리를 따냈다. 특히 최근 극심한 부진에 빠졌던 2001년생 유망주 고영준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든 것이 눈길을 끈다.

고영준은 지난해 프로에 데뷔해 금세 팀의 주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지난달 1일 대구FC전에서 골을 뽑아낸 뒤로는 부진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에 김 감독은 "더 뒤처지면 성장을 못한다. 실수를 해도 괜찮으니 자신감 있게 하라"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적극적으로 공을 받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공격형 미드필더지만, 고영준은 자신감이 떨어진 탓에 수비수 근처에 머무르며 패스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전북전에선 달랐다. 고영준은 수비와 미드필드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공격을 주도했다. 전반 16분 득점 상황은 이승모의 중거리 슛이 굴절되는 행운도 따랐지만, 활발하게 침투한 끝에 직접 포착한 기회였다. 후반 17분 다소 이른 시간에 부상을 당해 벤치로 물러났으나, 그의 활약이 전북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고영준은 김 감독의 '스틸러스 정신'이 자신을 포함한 많은 포항 선수들을 일깨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독님이 어린 선수들에게 투쟁심 있게 뛰라고 하셨다. 고참 형들만 머리를 부딪치며 뛴다는 말을 듣고 자세를 고치려 마음먹었다"며 이전과 자세가 달라졌다고 밝혔다.

김 감독이 살려낸 것은 고영준만이 아니다. "자신감 있게 뛰어주라"는 격려로 지난달 22일 FC서울전 퇴장으로 위축됐을 팔라시오스를 이날 전북전에선 돌격대장으로 변신시켰다. "올해는 최소 실점팀이 되자!"고 외친 한마디로 날카로운 창이던 포항을 가장 단단한 방패(28실점·팀 실점 2위)로 바꿔놓았다.

전주 | 이승우 기자@donga.com

'강등 위기' 성남·서울, 운명의 주말경기

최근 4G 1무3패 성남, 4일 대구전
최하위 서울은 5일 전북과 맞대결

위기의 성남FC와 FC서울이 이번 주말 강등권 탈출을 위한 일전을 치른다.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난다.

'하나원큐 K리그1 2021' 순위표 가장 아래에 있는 두 팀은 성남(승점 26·11위)과 서울(승점25·12위)이다. 승점은 물론 최근의 기세와 경기력 모두 12팀 중에서 가장 떨어진다. 다른 팀들과 승점차가 크진 않지만 분위기는 정반대다. 광주FC(승점 28·9위)는 A매치 휴식기 전까지 3연승을 달렸고, 제주 유나이티드(승점 31·8위)도 최근 3경기에서 2승(1패)을 보태며 상위권 도약까지 넘보고 있다. 강원FC가 10위(승점 27)에 머물러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수 자체가 적다.

성남은 2연패를 포함해 최근 4경기 연속 무승(1무3패)이다. 리그에서 가장 적은 골(22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력이 안 좋다. 팀 득점의 대부분이 뮬리치(10골)에게 쏠리는 문제가 심각하지만, 마땅한 해법이 없다.

서울은 성남보다 더 심각하다. 최근 5경기에서 1무4패를 기록했는데, 한 차례 무승부조차 퇴장으로 수적 열세이던 포항 스틸러스에 겨우 따낸 것이다. 여름이적시장에 지동원, 가브리엘 등을 영입하며 반등을 노리는가 싶었지만, 오히려 최하위로 곤두박질쳤다.



성남 김남일 감독



서울 박진섭 감독

경쟁자들이 A매치 휴식기에 들어간 사이 치르는 순연경기에서 반등을 모색해야 하지만, 전망이 밝진 않다. 성남은 4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대구FC와 홈경기를 치르는데, 지난달 28일 직전 라운드 맞대결에선 세징야에게 멀티골을 얻어맞으며 1-3으로 패한 바 있다. 대구의 5연패 탈출에 보약이 됐던 성남은 이제는 2연승의 제물이 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은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천적 전북 현대를 불러들인다. 전북은 1일 포항과 홈경기에서 0-1로 패하긴 했지만, 이번 시즌 이미 서울에 2승을 따냈다. 더군다나 전북(승점 47)은 울산 현대(승점 54)와 우승경쟁에서 더 뒤지지 않기 위해 승리가 간절하다. 객관적 전력이 뒤지는데, 서울은 의지가 가득한 전북을 상대해야 한다.

이승우 기자 raul1649@donga.com

sports2i 스포츠투아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결과

프로야구 기록실 〈1일〉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타율	평균자책점	홈승률	득점	실점	홈런	도루	실책
1	KT	94	56	37	1	0.602	-	1승	0.269	4.02	0.653	502	416	75	72	73
2	LG	91	52	37	2	0.584	2.0	5승	0.255	3.58	0.633	420	356	84	57	59
3	삼성	98	53	42	3	0.558	4.0	2승	0.271	4.25	0.646	500	445	91	95	62
4	NC	91	44	43	4	0.506	9.0	1패	0.271	4.71	0.488	484	457	118	65	70
5	SSG	97	47	46	4	0.505	9.0	1승	0.258	4.96	0.542	504	512	133	67	72
6	키움	98	49	48	1	0.505	9.0	4패	0.255	4.13	0.604	494	453	63	63	83
7	두산	92	43	47	2	0.478	11.5	1패	0.271	4.47	0.465	479	443	77	41	52
8	롯데	93	40	50	3	0.444	14.5	1패	0.272	5.36	0.390	473	525	76	42	55
9	KIA	90	37	49	4	0.430	15.5	1승	0.244	5.28	0.500	356	492	40	47	61
10	한화	98	36	58	4	0.383	20.5	1패	0.234	4.72	0.417	396	509	54	74	75

•팀간승패-남은경기

팀	NC	두산	KT	LG	키움	KIA	롯데	삼성	SSG	한화
NC	■	4-0-6	4-0-4	4-0-5	2-0-7	6-0-1	6-1-5	3-0-7	7-1-4	8-2-4
두산	6	■	3-0-6	3-0-5	4-0-8	5-1-4	4-1-8	6-0-5	6-0-2	6-0-5
KT	8	7	■	5-1-4	5-0-6	7-0-4	6-0-5	6-0-6	8-0-2	9-0-3
LG	7	8	6	■	8-0-3	7-0-5	6-0-3	6-1-5	5-0-6	6-0-3
키움	16	16	16	16	■	5-0-6	5-0-6	5-0-4	5-0-7	5-1-6
KIA	9	6	5	4	5	■	5-1-3	3-0-6	3-1-9	6-1-1
롯데	4	2	5	7	5	7	■	5-0-7	3-0-4	2-0-7
삼성	6	5	4	4	7	7	4	■	5-2-5	8-0-3
SSG	4	8	6	5	4	3	9	4	■	8-0-4
한화	2	5	4	7	4	8	7	5	4	■

(승 -무- 패순) *팀간경기없음

※'프로야구 기록실'이 신문제작 시간관계로 일부 게재되지 못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퓨처스리그 〈2일〉

•팀순위 북부리그

순위	팀명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LG	72	49	19	4	0.721	-
2	두산	67	31	30	6	0.508	14.5
3	고양	74	33	38	3	0.465	17.5
4	SSG	64	25	35	4	0.417	20.0
5	한화	70	22	45	3	0.328	26.5

•팀순위 남부리그

순위	팀명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상무	66	45	18	3	0.714	-
2	삼성	67	32	29	6	0.525	12.0
3	KT	74	33	35	6	0.485	14.5
3	롯데	74	32	34	8	0.485	14.5
5	NC	68	27	33	8	0.450	16.5
6	KIA	72	25	38	9	0.397	20.0

•경기결과

	팀	1	2	3	4	5	6	7	8	9	R	
서산	SSG	0	0	0	0	0	0	3	0	0	3	2시간40분
	한화	0	0	3	0	0	0	2	0	X	5	

승 이승관 세 신지후 패 유호식
홈 김지수(3회 3점 한화)

	팀	1	2	3	4	5	6	7	8	9	R	
문경	삼성	0	0	0	0	0	0	0	0	0	0	2시간27분
	상무	1	1	0	0	4	0	1	0	X	7	

승 박윤철 패 구준범

메이저리그 〈2일〉

•경기결과

LAD	4-3	애틀랜타	
시카고C	3-0	미네소타	
시애틀	1-0	휴스턴	
디트로이트	8-6	오클랜드	
St.루이스	5-4 〈DH1〉	신시내티	
보스턴	3-2	탬파베이	
콜로라도	9-5	텍사스	
토론토	5-4	볼티모어	
클리블랜드	5-3 〈연장11회〉	캔자스시티	
밀워키	5-2	샌프란시스코	
시카고W	6-3	피츠버그	
신시내티	12-2 〈DH2〉	St.루이스	
뉴욕Y	4-1	LAA	
애리조나	8-3	샌디에이고	

아마추어 경기결과 〈2일〉

야구 ●제 76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공주시립)
•8강=군산상고 5-4 상원고, 용마고 2-1 효천고

경기예고

주말 프로야구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3일	NC 〈잠실〉	LG	두산 〈인천〉	SSG
	오후6시30분, SPOTV		오후6시30분, KBSN스포츠	
	한화 〈사직·DH2〉	롯데	삼성 〈광주〉	KIA
	오후6시30분, SBS스포츠		오후6시30분, MBC스포츠플러스, 광주 CMB	
	KT 〈고척〉	키움	한화 〈사직·DH1〉	롯데
	오후6시30분, SPOTV2		오후3시, SBS스포츠	
4일	KT 〈잠실〉	LG	두산 〈대구〉	삼성
	오후5시, SPOTV		오후5시, MBC스포츠플러스	
	롯데 〈창원〉	NC	SSG 〈고척〉	키움
	오후5시, SBS스포츠		오후5시, KBSN스포츠	
	KIA 〈대전〉	한화		
	오후5시, SPOTV2, 대전 CMB			
5일	KT 〈잠실〉	LG	두산 〈대구〉	삼성
	오후2시, SPOTV		오후2시, MBC스포츠플러스	
	롯데 〈창원〉	NC	SSG 〈고척〉	키움
	오후2시, SBS스포츠		오후2시, KBSN스포츠	
	KIA 〈대전〉	한화		
	오후2시, SPOTV2, 대전 CMB			

•하나원큐 K리그1 2021

4일	성남	〈탄천종합〉	대구
	오후7시, JTBC G&S		
5일	서울	〈서울W〉	전북
	오후7시, 스카이스포츠		

아마추어 경기예고 〈3일〉

야구 ●2021 KBO 퓨처스리그
•KT-KIA(함평), LG-두산(이천 두산), 롯데-SSG(강화), NC-삼성(경산, 이상 오후1시)
●제 76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공주시립, 오전10시30분)
●2021 고교야구 주말리그 후반기(각 승인경기장, 오전10시)
축구 ●2021 K3리그(각 홈팀구장)
●2021 U리그(각 권역별 승인경기장)
테니스 ●제 75회 전국 추계 대학테니스연맹전 겸 제 33회 회장배 테니스대회(양구테니스파크)
골프 ●2021 KPGA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해피니스 CC)
●2021 KLPGA 제 10회 KG 이데일리 레이디스오픈(써닝포인트)

오늘의 토토 〈3일〉

•야구토토 스페셜 102회차 대상경기 및 게임일정

경기	경기일시	홈팀 vs 원정팀	경기장소
1	09.03 (금) 18:30	LG vs NC	서울잠실야구장
2	09.03 (금) 18:30	SSG vs 두산	인천SSG랜더스필드
2	09.03 (금) 18:30	키움 vs KT	고척스카이돔